

News

이자 못 받고, 대출 못 하고… 은행 건전성·수익성 동시 비상

조선일보

대출 만기 연장 · 이자상환 유예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은행권이 건전성 우려... 각종 대출 제한 규제 강도까지 연일 높아지면서 수익성 확보에도 부담....

"중소기업 대출 리스크가 커지는 마당에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높은 대출까지 제한하는 규제가 생겨 은행으로선 수익을 얻을 순발이 묶였다"

이전 은행앱에서도 네이버·카카오처럼 쇼핑한다

매일경제

내년부터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과 쇼핑이 가능... '빅테크'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때 영업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각종 규제도 생겨....

각종 금융 업무만 하던 은행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금융 · 생활 플랫폼'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

신한은행, 중징계 예고에 신사업 기로 '좌불안석'

데일리안

내년 초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돼...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에 차질....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신한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

우리금융, 아주캐피탈 품었다…자회사 12개로 늘어

한국경제

우리금융지주는 아주캐피탈 경영권 지분 74.04%에 대한 인수 절차를 완료하고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밝혀...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12개 자회사를 거느리게 돼... 소비자금융 관련 2개 그룹사를 한꺼번에 확충하는 효과....

'깜짝 실적' 손보업계, 금융당국 배당 자제령에 '딜레마'

데일리안

5대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올해 들어 3000억원 넘게 불어나...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배당 자제령을 내리면서 손보사들로서는 딜레마에 빠져... 과도한 정책적 개입이 주주 가치 훼손 우려도....

'자회사형 GA' 포문 여는 보험사… 속내는 '1200%룰' 회피

머니S

보험사들이 자체 GA를 설립해 제3판 분리를 속속 진행...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표면적 이유... GA를 활용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한다는 지적도...

"1200%룰이 GA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자회사형 GA로 전속설계사를 이관, 설계사들의 이탈을 줄일 수 있다"

개미 울린 불법 공매도, 앞으로 적발 시 징역형…처벌 수위 ↑

매일경제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 징역형은 물론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

현행 법으로 불법공매도 적발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어 송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임기만료 앞둔 증권사 CEO…호실적에도 '나 떨고 있니'

현대경제신문

증권사 CEO들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 각종 이슈로 긴장하고 있는 CEO도 존재...

"단순히 실적만으로 연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까다로운 내부 평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